

여객연합불자회

23일 대흥사서 '시동'

고속버스, 관광버스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가 창립된다.

대한민국 여객연합불자회 창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최근 창립 발기인 모임을 갖고, 6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창립법회 및 합동 수계식을 봉행하기로 했다.

여객연합불자회 출범은 여객 운송업 운전기사 실행단체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준비위는 창립 발기인 모임에서 준비위원장에 광주·전남 포교사단 이재술(48·계성·금호고속) 씨를 선임했으며, 회원은 현재 금호, 중앙, 중앙, 한진고속 등 고속버스회사에 소속된 운전기사들과 개인 관광버스 운전기사 2백여 명이 가입했다.

준비위는 우선 정기적인 실행활동 기반 조성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불규칙한 배차시간에 따른 회원들의 근무 여건으로, 지역별 소속사별 법회를 봉

고속버스 기사 2백여명 가입

터미널 부근에서 정기법회

행할 방침이다. 또 법회 장소도 각 지역 터미널 부근에서 간이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월별 실행스케줄'을 마련해 최자의 실행활동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준비위는 가족 중심의 실행활동 전개에 주력한다. 이는 회원들 대부분이 짝은 운송으로 모이기가 힘든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여객연합불자회의 중심을 부부 소모임에 둔다는 방안이다.

준비위는 이와함께 지역별로 자원 봉사활동도 펼치는 한편 각 지역 사찰별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해 신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여객연합불자회 창립을 주도하고 있는 이재술 씨는 "지난 3년간 여객 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의 불자 모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불자연합회가 늦게 출범한 만큼 불교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직장실행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011-797-0679

김철우 기자

부처님께 배우는 직장인의 성공 기술 세가지

"00씨, 이 고객의 불만사항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예, 과장님. 문제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려면 △△회사에 넘겨야 할 편지를 기다려야겠는데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지."

직장인 처세술의 한 장면. 치열한 일터에서 직장인들은 '일과 성공'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한다. 때론 핑계를 대며 비껴가

거나 정면 돌파를 시도하기도 한다. 부처님이 직장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독일에서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인 외르크 피트라우 박사는 최근 발간한 <위대한 스승 부처님에게 배우는 직장인의 성공법칙(도서출판 이산)>에서 '당신의 가슴이 비어있다면, 이미 성공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 책을 통해 직장인들이 성공하기 위한 법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가슴을 비워라

● 좋은 인연 맺기

'비판은 보물지도'라는 말이 <법구경>에 나온다. 인간관계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말들을 달게 받아들여 한다는 말이다. 만약 직장생활에서 갈등이 있다면, 불교적 해소법은 없을가. 부처님은 아침밥처럼 일상화된 '책임 미루기'를 지적한다.

부처님의 설명은 이렇다. 책임과 무책임을 따지는 것은 헛된 일이다. 책임에 관한 물음이 애초부터 생기지 않도록 한다. 상사로서 관사의 역할을 떠맡아서는 안 되고, 밖으로 물러나서 문제의 해결책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와 질투도 버리라고 주문한다. 이를 위해 자신을 집착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돕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덜 받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 집착하지 않기

관대함은 직장인들에게 무집착의 기술을 가르쳐준다. 집착으로부터의 해방. 부처님은 누군가 집착을 버리고 태연함을 원한다면 반항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일체의 분리는 욕심이나 고집이 주도하지 않는 이완된 정신상태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기술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무관심의 기술'을 말한다. 이 기술은 과거와 미래와 상관없이 그냥 일순간 일 뿐인 순간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또 항상심(恒常心)을 연습하라도 당부한다. 어느 상황에서든 항상심을 보여야 고요한 집착함이 발산된다는 말이다.

부처님의 주문 사항은 또 있다. 관대함은 불교의 중심 기둥이라는 것. 문제에 당면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관대함은 성공을 원하는 직장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사람을 끄는 개방성과 솔직함

당당하고 확실한 결정을 내려라. 참여적인 직원들은 상사의 분명한 말들, 위험 부담에 대한 대처와 망설임 없는 결정을 중요시한다.

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공유하라. 부서와 회사 전체가 해당하는 일에 관해서는 가능한 비밀에 부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관심 있는 직원들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계획되고 있는지 어디가 성공적이고 어느 곳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개방성과 솔직함이 사람을 보이지 않게 이끄는 기술이다.

결국 부처님은 '마음의 복종(心伏)'이 바로 일터에서의 진정한 성공법칙이라고 강조한다.

우리시대에 늘어난 가는 '신뢰의 상실', 신뢰의 회복만이 직장동료를 굳건한 동반자로 이끄는 성공의 토대라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그림 · 김영민

우리불자회는요

강원도청 법우회

강원도청 법우회는 지난해 11월 7일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습니다.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자신의 신심고취와 친목을 돈독히 하기위해서 모였습니다. 특히 모든 회원이 공직자이니 만큼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국민에게 무한한 봉사

와 불자다운 공직자의 자세를 구현하고자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아직 창립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활동내용은 미흡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 팔공산 파계사 강주와 영산울림장 철우 스님의 지도아래

고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 모두가 거룩하신 부처님과 가르침을 성실하게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다양한 실행 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1가정 부처님 모시고 예불실천하기', 지속적인 교리강좌 개최, 다양한 법회 및 위탁수련활동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공무원불자 봉사의 날 지정' 해 모범적인 실행활동을 전개하고, '자율적 계율 실천하기' '중점수행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6바라법 실천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강원도청 법우회원들이 6월 7일 춘천 반야사에서 파계사 영산울림장 철우 스님을 법사로 정기법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했다.

'가정에 부처님 모시고 예불하기' 전개  
자치단체 불자회 창립·계율 실천 역점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되기 위해 1백여 회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불자회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법우회 초창기 때는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불자들이 당당히 불자라는 것을 들어내는 것부터 꺼려하고, 또 참여가 소극적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습니

다. 그렇지만 이제는 철우 스님의 열성적인 지도와 회원 각자의 노력으로 강원도청 법우회도 불교실행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회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법우회의 활동계획은 먼저, 회원 신심고취에 최우선을 생각합니다. 둘째, 회원3백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강원도불자회연합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의 법회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불교세가 미약한 이 지역에 불교바람을 일으키려

도 도내 미정립 자치단체 불자회 창립을 유도하고 단위가관별 불자회의 인연진간 유대강화 및 연합회 결성을 추진해 도 단위 불자회 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공직사회에 지속적인 포교와 불교실행활동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내의 각 기관별 지휘부에 대한 불자회 참여를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와 협의하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창립기념법회(10-11월경)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계획들이 착실히 이행되어 도내의 불교실행단체조직 및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해 불법실천과 전파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는 불교실행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이공우 회장(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출고가가 1Set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 (74.8%할인)

단! "500분"에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儒·仙·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중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물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 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기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